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 금주의 GVC Insight



#### 최신 GVC 해외 이슈

**【원유·제재, EU·러시아】** EU, 對러시아 6차 제재안 채택

**【반도체·희귀가스, 러시아】** 러시아, '22년말까지 반도체 핵심소재인 네온 등 희귀가스 수출 제한

**【원유, OPEC+】** OPEC 플러스, 기존 방침보다 50% 상향하여 증산 합의

**【관세, 미국·중국】** 미국, 중국산 소비자에 대한 관세 인하 추진

**【무역·통상, 미국·대만】** 미국, 대만과 별도 경제 협력체 추진

**【반도체·무역투자, EU·대만】** EU, 대만과 반도체 공급망·무역투자 분야에서 협력 강화 추진

**【프렌드쇼어링, WTO】** WTO 전문가, 프렌드 쇼어링으로 세계 GDP 5% 감소 예상

**【천연가스, 러시아】** 러 가스프롬, '22년 5개월 동안 CIS 역외 수출 전년 동기대비 27.6% ↓

**【코로나, 중국】** 베이징, 6.6일부 일상 정상화 돌입

**【재생에너지, 중국】** 중국 9개 부처, <14.5기간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 발표



#### GVC 뉴스 더하기

- ① EU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의 6가지 한계
- ② 공급망 관련 국내 주요 이슈 (국무회의-반도체, IPEF 대응체계, 화물연대 총파업)
- ③ 일본 기업 및 정부의 최근 반도체 산업 투자 동향



#### GVC 기초상식

TSMC (대만 소재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 GVC 돌보기

세계 전기차 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 -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글로벌 전기차 현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 GVC 전문가

김희영(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 GVC 소식통

- ① 라우 사태,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③ 공급망 관련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 ④ IPEF 전략 웨비나 개최
- ⑤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한국무역협회)



#### 더 찾아보기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 특집 KBS 다큐멘터리(6.2~3)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 최신 GVC 해외 이슈

### ● **【원유·제재, EU·러시아】 EU, 對러시아 6차 제재안 채택**

- 6.3일 EU 집행위는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의 상세 내용을 공포함(관보 게재) ▲러시아 해상 원유(6개월 이내) 및 석유 제품(8개월 이내)에 대한 단계적 수입 금지, 연내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석유의 90% 수입 감소 예상, 송유관을 통한 수입은 당분간 유지, ▲Sberbank를 포함한 러시아 은행 3곳, 벨라루스 은행 1곳 SWIFT에서 추가 퇴출, ▲허위 선전 유포 언론사 3곳(Rossiya RTR/RTR Planeta, Rossiya 24/Russia 24, TV Centre International)에 대한 제재,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한 수출 제한, ▲러시아 군수산업 관련 개인 및 법인 제재 등
- 그 밖에 EU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출 제한을 채택한 파트너 국가에 영국과 한국을 추가

출처 : EU 집행위(22.6.3)

### ● **【반도체·희귀가스, 러시아】 러시아, '22년말까지 반도체 핵심소재인 네온 등 희귀가스 수출 제한**

- 5.31일 러시아 정부는 올해 말까지 비우호국에 네온·아르곤·헬륨·크립톤·제논 등 희귀 비활성 가스를 수출하려면 특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함
- 이와 관련, 인도 이코노믹타임스는 러시아의 희귀가스 수출 제한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 서방의 제재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평가함. 러시아 정부가 희귀가스를 내주는 대가로 반도체 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임
- 한국의 경우, 수입 네온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이 5% 정도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 부족으로 인한 네온 수입 가격의 상승이 문제임.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4월 네온가스 평균 수입 가격은 kg당 1,300 달러로 전월보다 4.5배 오름. 한편, 포스코는 지난 1월 광양제철소에 네온 생산설비를 만들었으며 금년부터 고순도 네온을 생산할 예정임

출처 : 로이터(22.6.2), 서울경제·매일경제 등 언론보도 종합

### ● **【원유, OPEC+】 OPEC 플러스, 기존 방침보다 50% 상향하여 증산 합의**

- 로이터 등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는 6.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7~8월 각각 하루 64만 8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함
- 이번에 합의한 증산량은 기존 방침보다 50% 가량 많은 양임. 지난달 증산량은 하루 43만 2천 배럴이었음
- 스위스 쿼트 은행의 이팩 오즈크데스카야 선임 애널리스트는 "(추가 증산은) 예상하지 못한 진전이였다"면서 "그간 증산에 부정적이었던 사우디의 변화는 2년간 얼어붙은 미국과의 관계를 녹일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해석함
- 물론 이번 OPEC 플러스의 합의가 당초 전망보다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하루 100만 배럴 상당의 러시아 생산 감소분을 만회하기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임

출처 : 로이터, 블룸버그,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 종합

### ● **【관세, 미국·중국】 미국,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 추진**

-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정용품 등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18년부터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고율 관세가 미국 내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일부 철폐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나 러ndon도 미국 상무장관은 6.5일 CNN에 출연하여 '트럼프 정부 시절의 관세가 유지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근로자와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답함. 이는 11월 미국 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철강기업 등이 밀집된 러스트벨트의 민심을 의식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임
- 다만, 철강 외의 다른 품목과 관련해서는 "가정용품이나 자전거 등과 같은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합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최종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언급함. 이와 관련 언론 등은 미국 정부가 조만간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평가함

출처 : CNN, 서울경제 등 언론보도 종합

### ● 【무역·통상, 미국·대만】 미국, 대만과 별도 경제협력체 추진

- 미 무역대표부(USTR)는 대만과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무역 이니셔티브'를 출범한 사실을 발표
  - 6.1일 세라 비앙키 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 판공실 대표 간 화상 회담 개최
- 양국은 ▲무역(Trade facilitation), ▲규제(Regulatory practices), ▲농업(Agriculture) ▲반부패(Anti-corruption), ▲중소기업(Supporting SMEs in Trade), ▲디지털 무역(Harnessing the benefits of digital trade), ▲노동(Promoting worker-centric trade), ▲환경(Supporting the environment and climate action), ▲규범(Standards),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시장경제 증진(None-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등 총 11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
-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대만을 IPEF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IPEF에 준하는 협력을 대만과 함께하기로 했다고 평가

출처 : 미 무역대표부(USTR) 보도자료(22.6.1), 블룸버그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 【반도체·무역투자, EU·대만】 EU, 대만과 반도체 공급망·무역투자 분야에서 협력 강화 추진

- EU와 대만은 6.2일 무역투자대화(TID)에서 반도체 등 공급망, 보안 및 기술 분야, 수출통제 및 투자심사 분야, 연구개발 분야 등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함
  - 그 외 농산품 시장 접근성 확대, 해상풍력발전산업 관련 상호 투자환경 개선, 對러 제재에 협력하기로 협의
- EU는 '21년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되 대만과 경제협력 관계 확대를 모색 중
  - EU는 20년 이상 대만과 WTO 회원국 자격으로 연례 양자간 무역 투자 대화를 실시하고 있음. 대만은 EU의 15번째 교역상대국이며, EU는 대만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

출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6.2)

### ● 【프렌드쇼어링, WTO】 WTO 전문가, 프렌드쇼어링으로 세계 GDP 5% 감소 예상

- WSJ(월스트리트저널)은 6.5일 세계무역기구(WTO) 소속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두 개의 배타적 경제블록이 형성될 경우 10~20년 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보도함
  - 세계 GDP 감소액 예상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4조 달러(약 5,508조원)
- 베아타 자보르치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세계가 블록 경제로 나아가는 듯하다"며 "프렌드쇼어링 움직임이 냉전시대를 연상케 한다"고 우려함. WSJ는 프렌드쇼어링의 여파로 세계 물가가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짐. 또한 기업들이 소속 국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 등 경제적 효과에만 집중해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함

- 물론 프렌드쇼어링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 프렌드쇼어링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불거진 공급망 병목을 완화하고 반도체 칩이나 원자재 등 확보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끼리 뭉치게 되면 원가는 다소 상승하더라도 위험도는 낮출 수 있다는 뜻임

출처 : WSJ, 한국경제 등 언론보도 종합

### ● 【천연가스, 러시아】 러 가스프롬, '22년 5개월 동안 CIS 역외 수출 전년 동기대비 27.6% ↓

- 러시아의 천연가스 기업인 가스프롬사의 '22년 1~5월, 5개월 간 CIS 역외 지역으로의 가스 수출 규모는 610억㎥로서 전년 동기대비 약 1/3 감소한 수준
  - 금년 5개월 동안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114억㎥로 전년 동기대비 4.8% 감소
  - '21년 가스프롬이 CIS 역외로 천연가스를 수출한 규모는 1,851억㎥였고, 전체 생산량은 5,148억㎥였음
  - 러시아의 對유럽 연간 가스 공급량은 노드스트림 송유관을 통해 550억㎥, 아말-유럽을 통해 330억㎥, GTS (우크라 관통 송유관)은 400억㎥ 정도임.
- 한편 '시베리아의 힘' 송유관을 통한 對중국 수출은 같은 기간동안 크게 증가했으나 가스프롬 측은 상세 정보는 미공개하고 있음

출처 : KOTRA 모스크바무역관 종합

### ● 【코로나, 중국】 베이징, 6.6일부 일상 정상화 돌입

- 베이징시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감소(6.5일 신규확진자 5명)함에 따라 코로나 방역 통제를 추가로 완화했으며, 6.6일부로 정상화 단계로 돌입
- ▲공공장소·대중교통 이용시 제출해야 하는 핵산 음성 결과 시한 기존 48시간 → 72시간으로 완화, ▲全市(통제구역 제외) 재택근무 → 정상근무로 전환, ▲6.6일부 매장내 음식 섭취 허용, ▲초등·중학교 6.13일부, 유치원 6.20일부 정상 등교(등원), ▲관광지 최대 수용인원의 75%까지 받는 조건으로 재개장 허용 등 (다만, 평타이·창핑區는 '칭링(清零 : 제로 코로나)이 될 때까지 방역통제를 실시)
- 이에 앞서 베이징시는 6.2일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성장 안정화 통합 추진 시행방안>을 발표한 바, 발표 취지는 △성장 안정화, △시장주체 안정화, △고용 안정화를 지원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하는 데 있음. 동 방안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경영환경 개선, △산업망·공급망 검색 해소 및 안정 확보, △첨단화·정밀화·고도화 산업 발전, △중대 프로젝트 건설 및 유효투자 확대, △주요 상품 소비 및 新소비 회복, △취업 경로 확대 및 민생 보장 등 6가지 측면에서 45가지 조치가 제시됨
  - 특히, ▲이월세금 환급,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 납부 연기, ▲국유 부동산산 임대료 감면, ▲비용 연체를 이유로 한 물·전기·가스 공급 중단 금지, ▲용자 원활화, ▲경영환경 개선 등 시장주체 대상 조치가 제시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일일경제 동향(22.6.6), KOTRA 베이징무역관 中國寶庫(22.6.6) 등

### ● 【재생에너지, 중국】 중국 9개 부처, <14.5기간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 발표

- 6.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에너지국, 재정부 등 9개 부처는 <14.5기간(21~25년)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발표함. 14.5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발전량 증가분 중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을 현재의 두 배까지 확대토록 함
  - 13.5기간 말(20년말) 기준, 중국의 풍력 발전량은 4,665억kWh(비중 6.1%), 태양광 발전량은 2,611억kWh(비중 3.4%)인 바, 14.5기간 말(25년말)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 총합을 1.45조kWh까지 확대할 계획
-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 '25년 20%, '30년 25%, ▲'25년 재생에너지 소비량 10억 표준석탄톤, ▲'25년 재생에너지(수력 등 포함) 발전량 3.3조kWh 등을 목표로 제시함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일일경제 동향(22.6.2), KOTRA 베이징무역관 中國寶庫(22.6.2) 등

## GVC 뉴스 더하기 ① : EU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의 6가지 한계

※ 5월말 EU 정상회의에서 6차 對러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제품의 부분 수입 금지가 결정됨. 금번 제재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2/3 이상이 즉시 감소할 전망이며, 러시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석유 금수 조치 효과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 EU, 연말까지 유조선 통한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제품 수입 제재 합의

- EU 27개국은 6개월 이내 석유 수입 및 연말까지 석유 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 다만, 헝가리의 반대로 **송유관을 통한 러 석유 수입은 한시적으로 예외 허용**
  - 연말까지 EU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90% 감축 전망
- 對러 석유 의존도가 높은 **슬로바키아·체코·헝가리는 남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지속 수입할 예정**, 반면 독일·폴란드는 북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수입이 가능함에도 연말까지 송유관을 사실상 폐쇄하겠다는 계획임
  - 드루즈바 송유관은 벨라루스·폴란드·독일·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체코·헝가리와 연결, '22.1월 기준 일 75만 배럴이 송유관 통해 공급, 독일(50%), 폴란드(16%), 슬로바키아(13.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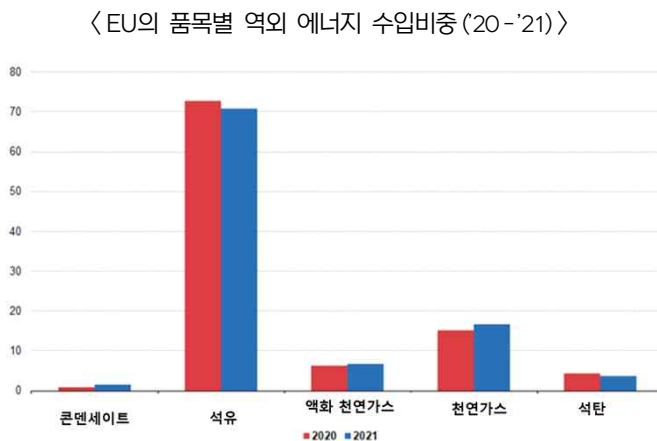


(자료: Brueg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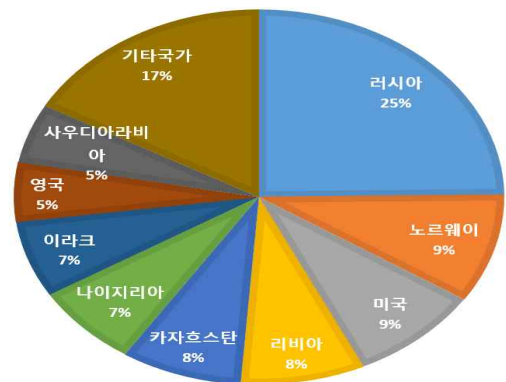
〈 EU 정상간 러 원유 및 석유제품 부분 금수 합의(5.30일) 후 6.3일 EU 관보 게시 내용 〉	
러 원유 및 석유제품 직간접적 구입, 수입 및 운송 금지하고, 기술지원 및 중개, 금융 포함 서비스 일절 제공 금지	
원유(CN2709 00)는 '22.12.5일까지, 석유제품(CN2710)은 '23.2.5일까지 기존 계약의 이행 및 단기배송을 위한 일회성 거래 등에 한해 수입 허용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입은 이사회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외 허용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 중단 시, 내륙 회원국은 공급이 재개될 때까지 유조선을 통한 원유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	
일부 회원국에 추가적인 수입 예외 허용	
· 불가리아는 '24.12.31일까지 '22.6.4일 이전 체결된 계약 등에 대해 유조선 통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가능	
· 크로아티아는 '23.2.5일까지 러시아산 감압경유(CN2710 19 71)를 특정 요건 충족 시 수입 가능	
다만 예외 수입한 물량을 기타 회원국 및 제3국에 판매, 전송은 불가	

### ● EU의 석유 수입 규모 및 對러시아 의존도는?

- '21년 기준, EU의 역외 석유 수입액은 1,947억 유로로 전체 에너지 수입액의 70.9%를 차지하여 천연 가스(16.6%) 비중을 크게 상회하며, 주요 수입원은 러시아(24.8%), 노르웨이(9.4%), 미국(8.8%) 순



〈 EU의 수입 대상국별 '21년 석유 수입 비중 〉



(자료: Eurostat)

- 러 석유 및 석유제품 의존도가 높은 EU 회원국은 슬로바키아(78.4%) 리투아니아(68.8%), 폴란드(67.5%), 핀란드(66.8%), 헝가리(44.6%) 순



## ● EU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 효과의 6가지 한계

- ① **(부분 금수조치)** 러시아의 對EU 원유 수입량의 60%를 차지하는 해상 운송은 제재하지만 헝가리의 반대로 **송유관을 통한 수입은 허용하여 부분적인 효과 예상**
  - 송유관 통한 러산 석유 일부 수입 지속은 헝가리 오르반 총리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헝가리는 항구가 없어 드루즈바 송유관 통한 석유 조달 필요성 주장
  - EU는 헝가리·슬로바키아의 동의 위해, 송유관 통한 러 원유 공급 중단 시 해상 구매 보장 “긴급 조치”도 약속
  - EU 27개국은 중단 일정 및 남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로 향하는 “나머지 10%의 석유” 관련 협의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러시아 송유관을 통한 러 석유 수입 금지 개시 시점이 명확하지 않음
- ② **(효과 제한)** 이번 해상 금수조치는 6개월 후, 정제유는 '23년부터 시작하는 관계로, 본 제재의 핵심 목표인 신속한 러시아의 재정·경제상황 악화와 그로 인한 군사력 타격은 더 늦을 것으로 평가
  - “제재의 핵심 목표는 러시아의 재정 및 경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악화시켜 군사력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는 평가 [브뤼셀 싱크탱크 Bruegel의 시몬 탈리아피에트라 선임연구원 겸 에너지 전문가]
  - 금수 조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석유 및 가스 판매 수입이 모스크바 연방 예산의 약 40%로, 러시아 최대 외화 수입 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타격이라는 의견도 존재
- ③ **(대체 수입국)** EU 포함 서방국가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감소했으나, 인도·중국·터키의 수입은 증가 추세
  - 서방은 러-우 사태 직후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자발적으로 중단. 이로 인해 러産 석유 가격은 급락하여 글로벌 벤치마크 가격보다 35달러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의 '22.5월 석유 수출은 4월 대비 6% 증가, 인도·중국·터키의 수입을 늘려 부분적으로 손실 상쇄
  - 중국은 '21년 일일 평균 160만 배럴을 구매한 러시아의 가장 큰 단일 국가 고객으로, 중국 기업들은 5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약 190만 배럴로 늘렸지만[Vortex Analytics] 중국은 지나친 1국 의존 역시 경계 중
  - 인도는 러-우 사태 이후 전년 동기대비 3배 많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 [Refinitiv Eikon 데이터]
- ④ **(규제·감시)** 러시아의 그리스 선박을 통한 원유 수출이나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등 타 국가의 원유와 혼합하여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등의 행위 규제·감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그리스 선주 소유의 선박 네트워크가 해상에서 제재 대상 러시아 선박의 물량을 받아 인도와 아시아의 구매자에게 석유를 공급 중이라 하며, 선박이 식별 응답기를 끄는 경우 목적지 추적도 어려움 [해운 정보 회사 Lloyd's List]
  - 해상에서 다른 원유로 희석하고 화물에 ‘카자흐’, ‘라트비아’ 또는 ‘투르크메니스탄’ 오일 블렌드로 다시 라벨링 하여 러시아 석유의 출처를 위장하기도 함 [인사이트 12호 더 찾아보기 참고]
  - 무엇보다 현재 제재 회피는 15개 EU 국가에서 범죄(Crime)가 아닌 행정위법(Administrative Offense)임. EU집행위는 EU 전역의 범죄로의 규정을 제안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
- ⑤ **(러시아 유전 손상)** 원유 수출 침체로 인한 러시아 원유 감산, 장기적으로는 영구적인 유전 폐쇄 우려
  - '22.5월 러시아 일일 원유 생산량은 2월 대비 83만 배럴 감소, 이번 금수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무역 전환 흐름을 가속화하고 러시아 석유 회사가 더 많은 유전을 폐쇄하도록 강제” 함에 따라 러시아의 원유 일일 감산량이 '22년 하반기 3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
- ⑥ **(추가 조치)** 원유의 불완전한 부분 금수조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여섯 차례가 소요된 것으로 보아 러시아의 천연가스 제재는 단기간 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평가
  - 일부 EU 회원국, 특히 폴란드와 라트비아 등 발트해 연안국은 천연가스 제재를 주장
  - 그러나 EU가 러시아 가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EU의 REPowerEU 계획은 '30년 이전 달성이 목표로, 추진에 속도를 내게 할 정치적 유인은 없음
  - 5.31일 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가스는 공급 안보 측면에서 석유와 달라 석유를 보상하는 것이 훨씬 용이. 따라서 가스 금수 조치가 다음 제재 패키지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EU의 러 가스 금수 가능성을 일축



## GVC 뉴스 더하기 ② : 공급망 관련 국내 주요 이슈

### (국무회의-반도체, IPEF 추진체계, 화물연대 총파업)

#### 1. 국무회의(6.7)에서 '반도체 산업' 집중 논의

- 윤석열 대통령은 6.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교육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함.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윤 대통령은 “첨단사업 인재를 키우려면 기존 방식으로 안된다”며, “교육부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
-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각자 반도체 산업을 공부해서 수준을 높여야 한다. 과외 선생을 불러서라도 공부를 더해야 한다”고 함.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非)경제·산업 부처 장(長)들에게 반도체 학습을 강조할 정도로 쏠 정부적 과제로 인식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설명함

#### 2.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범정부 대응체계 마련

- 6.7일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IPEF 관련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함.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one team)”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하며 IPEF에 대응할 계획임
-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하고, 4대 주요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하여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임
  - (4대 주요 분야 분과장) ①무역 : 산업부, ②공급망 : 산업부·외교부·기재부, ③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 산업부·외교부, ④조세·반부패 : 산업부·기재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
- 이와 함께, 법무부, 법제처,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하여,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민관전략 회의(통상교섭본부장 주재, 6월중 출범 예정)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임

#### 3. 화물연대, 6.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6.7일 화물차주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함
  -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6.7일 오전 부산·인천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지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으며, 참여 인원은 총 9,000여 명으로 전체 조합원(2만 2,000여 명)의 40% 수준임
  - ‘안전운임제’는 화물 과적과 기사 과로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의 운임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업체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금년 말 종료 예정(일몰제)
- 국토교통부는 “단순 집회가 아닌 정상 운행 차량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
-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불사하며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최근 급등한 유가 문제도 있음. 특히, 화물차들이 연료로 쓰는 경유의 가격은 6.8일 현재 2,030.24원까지 오른 상황임. 화물연대는 크게 오른 경유 가격으로 인해 안전운임제의 연장 없이는 화물기사들의 생계가 어렵다는 입장임



## GVC 뉴스 더하기 ③ : 일본 기업 및 정부의 최근 반도체 산업 투자 동향

※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일본 경제안전보장전략 중 하나로서, '21.6월 핵심 전략물자인 반도체 전략 발표 이후 11월에는 법률 개정으로 보조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를 통해 대만 TSMC 유치에 성공함. 최근 일본 정부의 지원에 따른 주요 반도체 기업의 日 국내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바, 그 동향을 살펴보자

### ●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 투자 동향

- 도시바가 약 40%의 주식을 보유한 **키옥시아HD**는 기타카미 공장에 새로운 제조동을 건설할 예정이며, 세계 최대급 윗카이치 메모리 공장 신규 제조동 역시 '22.4월 완성되어 이르면 올 가을 가동 예정
  - 日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6천억엔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으며, 기타카미 공장도 대상이 될 가능성 존재
- 대만 TSMC는 소니·덴소와 함께 데이터처리 담당 로직 반도체 생산 공장을 구마모토현에 건설 예정
  - 총 사업비는 약 1조 엔으로 '24년에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며, 지원자금 대상 제1호로서 약 4천억 엔이 지급될 전망
  - 정부가 공장 건설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정부 지원의 조건으로 10년 이상 지속 생산 등을 요구
- 그 외 도시바 및 미쓰비시전기의 파워 반도체 생산체제 강화 등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 일본 국내 주요 반도체 관련 투자 〉

기업	사업내용	장소	가동예정	총사업비
키옥시아HD	플래시 메모리 생산 공장 증설	미에현 윗카이치시	'22년 가을	각각 1조엔 규모 전망. 협업하는 美 반도체 대기업 WD과 공동 부담
		이와테현 기타카미시	'23년	
TSMC	전자기기대기업 소니 그룹과 자동차 부품 대기업 덴소, 협업하여 공장건설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	'24년말	약 1조엔 (정부 약 4천억 엔 지급 방침)
SUMCO	반도체 기판재료인 실리콘웨이퍼 공장 건설	사가현 이마리시	'23년 후반	약 2천억 엔
JX금속	반도체 배선재료 등의 공장건설	아비리키현 히타치카시	'25년도	2천억 엔 규모
도시바	전력제어 담당 파워반도체 공장 증설	이시카와현 노미시	'24년도	1천억 엔 규모
미쓰비시전기	전력제어를 담당하는 파워반도체의 생산능력 확대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21년도 11월 (가동 중)	약 200억 엔

### ● 투자 목표 : 첨단 반도체 양산 및 생산능력 확충

- 키옥시아가 생산하는 **NAND 플래시 메모리**는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며 대용량화 및 고속화가 요구되는바, **기억소자를 축적하는 3차원화가 관건**
  - 동사는 '07년 세계 첫 3차원 메모리기술을 발표, 현재 96층·112층 중심 생산 → 최첨단 고성능 162층도 생산 예정
- **플래시 메모리**는 가격 경쟁이 치열한 바, 키옥시아는 美WD사와 협력, 생산능력을 높여 삼성 등에 대항
  - 키옥시아는 동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9%로서 2위이며, 기타카미·윗카이치 공장에 공동 투자하는 美 웨스턴 디지털(WD)은 15%로서 3위인 바, 양사를 합친 시장 점유율은 세계 1위인 삼성전자에 근접
-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범용품 뿐만 아니라 전용품도 중요한 바, 일본 정부는 약 6천억 엔의 기금과는 별도로 약 470억 엔의 예산을 마련하여 **마이콘(Microcontroller)**과 **파워반도체** 등을 지원
  - 제조 설비의 증설 등에 대한 보조를 '22.3월까지 30건, 약 465억 엔 규모로 채택했으며, 이 중에는 도시바 및 미쓰비시전기의 공장 등이 포함되지만, 일본 정부는 개별 프로젝트별 보조액 등은 미공표

###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미국·중국·EU와 같이 반도체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일본의 반도체 생산 목표 달성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또한, **우리는 어떻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고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 일본은 '80년대 반도체 세계 시장점유율 50% 전후를 차지했으나, 현재 약 10%로 하락 →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산업정책 실패로 규정 → 세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공장건설에 최대 1/2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산업 부활을 추진 중





## GVC 기초 상식 : TSMC (대만 소재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 TSMC는 요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임. 대체로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것은 알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기초 상식의 차원에서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자

### ●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臺灣積體電路製造

본 사	대만 신주시 신주과학단지	시가총액	약 600조원 (아시아1위)	
분 야	반도체 위탁생산 (파운드리)	매출액	20.93조원 (22.1분기)	
설립일	1987년 2월 21일	영업이익	9.54조원 (22.1분기)	
설립자	모리스 창 (張忠謀 장중머우)	영업이익율	45.6% (22.1분기)	
회 장	Mark Liu (劉德音 류더인)	자산총액	812억 달러 (19)	
CEO	C.C. Wei (魏哲家 웨이저자)	금년투자	최대 440억 달러 (22)	

### ●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의 독보적인 세계 1위 기업 = '슈퍼 올'(Super Z)

\* 파운드리 :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아 반도체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인사이트' 6호 참조)

- 파운드리 분야에서 점유율 50% 이상의 독보적인 1위 (2위는 삼성전자)
- '18년 7나노 제품 양산 → '20년 5나노 제품 양산 → 퀄컴의 3나노 공정의 차세대 AP 및 엔비디아의 핵심제품 생산도 TSMC가 연달아 수주
- 현재 반도체의 90% 이상을 대만에서 생산 중
- 매출의 60% 이상이 미국 기업(애플·퀄컴 등)으로부터 나눔
- 중국 상하이와 난징에도 공장 운영 중
- 美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日 구마모토에 1조엔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 (독일과 인도에도 공장 건설 계획 추진 중)



### ● TSMC = '호국신산'(護國神山) = '반도체 방패'(Semiconductor Shield)

- 대만 사람들은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TSMC를 호국신산(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부름 (※ 호국신산은 원래 대만섬 중앙에 남북으로 뻗은 중앙산맥을 가리키는 용어)
- VLSI리서치 덴 허치슨 대표는 "대만의 칩(반도체) 기술 선도가 중국의 침략에 대한 최선의 방어"라며 "미국은 (반도체 기술로 인해) 대만을 보호해야 하고 대만을 중국에 뺏길 수 없다"고 언급
- '21.11월 미국 육군대학 계간지(PARAMETERS)에서 "중국-대만 간 전쟁으로 인해 만약 TSMC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이 TSMC를 선제 폭파해야 한다"고 주장될 정도로 TSMC의 전략적 가치는 막대

### ● 창업자 : 모리스 창(장중머우 張忠謀)

- MIT에서 기계공학 학·석사 → 미국의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에서 20년간 근무 및 글로벌 반도체 부문 최고 간부 역임 → 제너럴인스트루먼트(GI)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 역임
- '85년 귀국하여 대만 국책연구기관인 공업기술연구원(ITRI) 원장 역임 → '87년 대만 정부를 설득하여 정부 투자금과 민간 자금을 모아 TSMC로 분사(공기업으로 창업) → '92년 민영화

### ● 기업 모토 :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 삼성전자처럼 자사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파운드리(위탁생산)만 맡고 있어 팹리스 기업들이 기술 유출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점
  - TSMC에는 설계도를 넘겨도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함 → TSMC에 발주하는 것을 선호





**GVC 전문가 : 김희영(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 최근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 및 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우리나라도 전기차 양산 후 10년이 지남에 따라 수년 안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음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왜 필요한가?**

- (환경)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해 원자재(리튬, 코발트 등)를 채굴하려면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 또한 폐배터리를 매립하면 심각한 토양오염을 일으킴
- (경제) 원자재가 일부 국가나 지역에 치우쳐 있는 데다 채굴량이 한정돼 있어 가격이 매우 불안정함. 그러나 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천연 광물상태에서 채굴하는 것보다 정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 주력 배터리인 삼원계 배터리는 제조원가가 높아 재활용 시 수익률이 높음
- (공급망) 중국 등 배터리 원자재 보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가 가능함

● **재활용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 폐배터리를 수리해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 외에 재사용(Reuse)과 재활용(Recycle)이 있음

<p><b>* 재사용(Reuse)</b></p> <p>잔존용량이 높은 폐배터리의 팩을 일부 개조하거나 기존 팩 그대로 수거해, 해체 및 안전 테스트를 거친 후 다시 ESS(Energy Storage System) 상품화를 통해 재사용하는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터리 성능이 60-80%인 경우 발전소, 충전소 등에서 전력 보조장치로 사용하고, 20-60%의 경우에는 가정용 ESS로 활용</li> </ul>	<p><b>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흐름도</b></p> <p>자료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마련 연구' (환경부, 2018) via 제주연구원 '제주EV리포트'(2017)</p>
<p><b>* 재활용(Recycle)</b></p> <p>폐배터리를 셀 단위에서 분해해 전극 소재, 특히 코발트, 리튬, 니켈 등 고가 소재를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방식을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처리) 방전, 해체, 부품 회수, 분쇄, 블랙파우더 제조</li> <li>- (후처리) 건식제련과 습식제련</li> </ul>	<p><b>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흐름도</b></p> <p>자료 : 포스코</p>

●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17년 1.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8~'25년 중 연평균 41.8%씩 성장하면서 '25년에는 22.8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에서의 국가별 입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은 각기 다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시장규모는 국별 전기차 보급률\*과 맥을 함께 할 것으로 예상
  - \* 전 세계 전기차 보급량의 압도적 1위인 중국(세계 비중 51.5%)에 이어 EU, 미국, 한국, 일본 순

● 다른 나라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환경보호와 채굴 및 제련 비용 절감,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의 대안으로 일찍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음. 특히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미국)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자국 생산이 미미해 공급망 차원에서 미국 내 '전기차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재활용 산업을 육성
  - (EU)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며, 글로벌 규제·표준 선점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일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지 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정부보다는 민관이 공동으로 배터리 재활용 전략을 논의하고 재사용 사례를 구축하고 있음
  - (한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활용 산업이 확장되고 있으며, 재활용 전문 중소기업과의 협업과 정부의 법규화 노력이 병행되고 있음
  - (중국) 배터리 이력 관리는 물론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도 진행 중. 폐배터리 내 **핵심 소재 회수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 배터리의 규격, 포장, 운송, 회수, 해체 등 **각 단계별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있음. 그 밖에 관련 기술 개발 및 대표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음

국가	단계	주도 및 대표법안	특징
미국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방정부</li> <li>• '공급망 100일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 내 생산이 미미해 공급망 차원에서 접근</li> <li>• 인프라 투자 및 연구개발 지원</li> <li>• 관련 기업·산업 육성</li> </ul>
EU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정부</li> <li>• '새로운 배터리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책 성격이 강하며, 글로벌 표준에 관심</li> <li>• 배터리 여권제도 시행(이력 관리)</li> <li>• 재활용 원료 활용 비율 의무화 부여(22년 50% → '30년 70%)</li> </ul>
일본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중심, 정부협력</li> <li>• '순환경제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이 비즈니스 기회 포착 시작</li> <li>• 정부도 투자 및 육성 프로그램 도입</li> </ul>
한국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및 대기업 중심</li> <li>• '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 법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연구개발 진행</li> <li>• 인증기준, 법적기반 등은 아직 미흡</li> </ul>
중국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li> <li>• '공업자원 종합이용 가속추진 실시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규모 지속적 확대(22년 280억 위안)</li> <li>• 니켈·코발트·망간 회수율 98%, 리튬 85%, 기타 희소금속은 97% 설정</li> <li>• 생산자에 대한 재활용 책임제도 명시</li> <li>•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시범사업 진행</li> <li>• 재활용기업 4만개사 등록 및 특허 증가</li> <li>• 6대 중점과제 제정 (이력 관리, 패키지화, 표준화, 대표기업 육성, 기술 향상, 규범화)</li> <li>• 재활용 국가표준 제정(규격, 등록, 회수, 포장, 운송, 해체 등)</li> </ul>

●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추후 세계적인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 동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폐배터리 기준 설정, ▲배터리 이력 관리, ▲회수 인프라 구축 및 세제 지원, ▲공급망을 고려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 구축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등 필요

## GVC 소식통 ① : 러-우 사태 ·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①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러시아데스크 · 제도문의 : 02-6000-6498 / 6499 · 품목분석 : 02-6000-6496 / 6497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② 금융	금융감독원(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02-787-5611)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안내 ※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 특별운영자금 : 02 조원 · 중소기업 지원자금 : 06 조원
	수출입은행 영업점 등(02-6252-3416)		· 0.5 조원 규모 지원
기업은행 영업점 등(02-729-7494)	· 0.7 조원 규모 지원		
③ 무역투자	KOTRA(www.kotra.or.kr) · 무역투자24 상담창구: 1600-7119(2 → 4)	“무역투자24” 온·오프 상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02-399-7204/7034/6951·1588-3884	무역보험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④ 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044-203-3861~2)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산업부·무역협회·코트라 등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⑤ 물류	KOTRA(www.kotra.or.kr) · 유망기업팀: 02-3460-7445/7426/7428	긴급물류 지원 사업	현지 임시 보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⑥ 법률자문	KOTRA(www.kotra.or.kr)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연결번호2-4)	비즈니스 애로 러시아 변호사 자문 상담	
⑦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전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	· 러-우 수출입비중 30%이상 · 러-우 진출·수출입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이상	·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 10억원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 중국 공급망 관련

구분	담당 기관	연락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표전화)
	KOTRA 유망기업팀 '물류 현안 지원'	☎ 02-3460-7445/7430/7426
중국 현지	주중한국대사관(상무관) 및 총영사관(상무관)	☎ (+86)10-8531-0849 (대사관 상무관실)
	KOTRA 중국내 무역관(베이징 등 20곳)	☎ (+86)10-6410-6162 (중국본부, 대표전화)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지부(베이징·상하이·청두)	☎ (+86)10-6505-2671~3 (베이징지부)
	중국한국상회 및 지역한국인(상)회	☎ (+86)10-8453-9756~8 (중국한국상회)

※ 실물경제 공급망 관련 산업부-재외공관(상무관)-KOTRA(무역관)-무역협회-한국상회 등이 유기적 협업 시스템 운영 중



##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 중국지역 긴급 화물 보관 및 내륙운송 지원 특별사업 (KOTRA)

- (지원대상) 중국 내 물류 이동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참가비) 국고 기업분담금 매칭으로 100만~1,000만원 지원(국고지원 비중: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VAT포함)
- (참가절차)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http://www.kotra.or.kr)) 사업신청 > 사업명: '물류 검색' 해당사업 클릭 → ② 지원가능 여부 검토(해외무역관) → ③ 참가업체 선정(본사) → ④ 선정통보 및 참가비 납부 → ⑤ 무역관과 협약서 체결 → ⑥ 사업지원개시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45, 7430, 7426

### ●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 부산항 / 도착 :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날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몸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삼성 SDS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 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해상운송] 중소기업 철강 벌크화물 해상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포스코)

- (사업개요) 포스코의 수출 화물과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화물을 합적하여 해상 운송 지원
- (지원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 반제품류\*) 및 포워드  
\*포스코의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을 통해 합적 운송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필요

〈 항차 정보 〉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 (상세내용) 포스코 공동 "회원사 해상운송 지원사업"(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온라인 신청: 포스코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www.steel-n.com) → 회원가입 신청 → 회원가입 승인 이후 화물 합적 신청  
    메일 신청: 링크(클릭) → "포스코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 회원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hjlee0913@poscoflow.com](mailto:hjlee0913@poscoflow.com)으로 제출
- (문의처) 사업·참가신청 방법 안내 문의: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 02-6000-7617/5359 / [hjo117@kita.net](mailto:hjo117@kita.net)  
    화물 합적 가능여부 확인·플랫폼 관련 문의 : 포스코 해외철강물류그룹 ☎ 02-3457-3199 / [hjlee0913@poscoflow.com](mailto:hjlee0913@poscoflow.com)

● [해상운송] 로스엔젤레스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밸류링크유)

-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선박 마련을 통해 운송 지원(~22년 6월)

〈 해상-출항 정보 〉

출항예정일	예약 마감일	서류/화물 (입고) 마감	중소기업 전용 스페이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편당 3톤 내외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편당 3톤 내외

- (상세내용) 물류 스타트업 "밸류링크유" 공동 수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 02-6000-5754 / [hjo117@kita.net](mailto:hjo117@kita.net)

● [복합운송] 유럽·러시아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LX판토스)

- (사업개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전용 선박 마련 → ① 운임 할인(10~15%), ② 선박 지원(항차별 30TEU 확정 지원), ③ 실시간 가격 조회 및 이력관리 제공
- (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드사는 신청불가

☞ 기존대비 변경사항

- ▶ 도착지 확대: 유럽 전역 및 러시아
- ▶ 모집방식 변경: 상시모집

〈 항차 정보 〉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소요일	컨테이너	최종도착지	소요일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30일	40피트(*20피트 불가)	유럽 전역	+2~3일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45일	20피트·40피트		
		러시아 모스크바	40일		모스크바 인근 지역	

- (상세내용) 유럽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지원사업 관련 :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5935 / [logistics01@kita.or.kr](mailto:logistics01@kita.or.kr)



## GVC 소식통 ③ : 공급망 관련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 ● 부산항-네덜란드 물류 세미나

- 對유럽 비즈니스를 추진 중인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항-네덜란드 물류세미나
  - (일시/장소) 6월 14일(화) 14:00~15:20 /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 (서울 중구 을지로 30)
  - (신청기한) 6월 13일(월) 18:00까지
  - (참가신청) [부산항-네덜란드 물류 세미나\(클릭\)](#)에서 신청하기 클릭
  - (프로그램) 해당 물류센터 소개 및 네덜란드 물류전문가 초청 유럽 진출 기회 공유, KOTRA 해외공동 물류센터 사업 설명과 사전 신청기업 대상 개별 면담 진행
  - (상세내용) [부산항-네덜란드 물류 세미나\(클릭\)](#)에서 확인
  - (문의처) 부산항만공사 서영만 대리 ☎ 051-999-3265 / ymse0@busanpa.com

### ● 한-중(동북3성) 그린산업 협력 플라자

- 수소(생산, 저장, 운반), 환경보호(수처리, 토양오염방지) 등 그린 산업 기업의 동북3성 진출을 위한 온라인 상담회
  - (일시) [설명회] 6월 28일(화) 12:00~13:00 / [1:1 상담회] 6월 28일(화)~29일(수) 13:00~17:00
  - 온라인 설명회와 1:1 화상상담 모두 참가 희망 시, 각 개별 신청 필수
  - (신청기한) 6월 13일(월) 18:00까지
  - (참가신청) [KOTRA 한-중\(동북3성\) 그린산업 협력 플라자\(클릭\)](#)에서 1:1 화상상담 신청하기 클릭 후 1)사업신청서 작성 및 2)기업 IR자료(중문or영문 버전)를 첨부
  - 설명회는 우측 QR 활용하여 신청 요망, 별도의 서류 제출 불요
  - (프로그램) [온라인 설명회] 동북3성(랴오닝성, 흑룡강성, 길림성)의 그린산업 현황과 한국 수소산업 정책 및 현황 등 한-중 그린산업 협력방안 설명 진행  
[1:1 상담회] 그린산업 분야 국내기업(20개사)과 해외기업(40개사)의 1:1 화상상담 진행
  - (상세내용) [KOTRA 한-중\(동북3성\) 그린산업 협력 플라자\(클릭\)](#)에서 확인
  - (문의처) KOTRA 그린산업팀 강형욱 대리 ☎ 02-3460-7485 / moouuk@kotra.or.kr

설명회 신청 QR



### ● 한-산동성 산업협력 플라자

- 조선해양, 화학, ICT, 의료바이오, 스마트팜/환경, 소재 분야 기업 협업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 (일시/장소) [1차] 7월 6일(수) 청다오 / [2차] 8월 17일(수) 지난
  - (신청기한) 6월 13일(월) 18:00까지
  - (참가신청) [KOTRA 한-산동성 산업협력 플라자\(클릭\)](#)에서 신청하기 클릭 후 1)상담회 신청서 작성 및 2)기업 카탈로그(중문or영문)를 zip파일로 첨부
  - 용량초과로 인해 첨부 불가시 아래 문의처 메일로 송부 요망
  - (상세내용) [KOTRA 한-산동성 산업협력 플라자\(클릭\)](#)에서 확인
  - (문의처) KOTRA 청다오무역관 한여령 과장 ☎ (86)532-8388-7931(Ext.104) / yeoryung@kotra.or.kr

## GVC 소식통 ④ : IPEF(인태 경제프레임워크) 전략 웨비나 개최

### ●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전략 웨비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 (내용)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발표(한국무역협회 이유진 수석연구원, '인사이트' 13호에 소개) 및 질의·응답
- (일시) 2022. 6. 16(목) 15:00~15:45 (중국 시간 14:00~14:45)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웨비나 신청 QR



※ 동 행사는 당초 중국 주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나, 웨비나 형태로 진행되므로 한국에서도 참가 가능

## GVC 소식통 ⑤ :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한국무역협회)

### ● 한국무역협회 해외지부 현지 지원 서비스

- (사업 개요) 한국무역협회 11개 해외지부가 현지에서 회원사의 수출지원을 위해 서비스 제공
- (제공 서비스) ▲주요 산업/품목별 시장정보 제공 ▲회원사 품목 시장성 분석 ▲통상정보/뉴스레터 제공 ▲바이어 알선 및 신용조사 ▲바이어 수출성약 지원 ▲현지 유통망 입점 지원 ▲물류통관 자문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인허가 취득 지원 ▲법률자문서비스 등 (지부별 서비스 제공 내역은 상이할 수 있음)

지역/국가	해외지부	문의처	서비스 제공가능 권역
미국	뉴욕	kitany@kita.net	(24개 주) 네바다,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뉴욕, 뉴저지,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메사추세츠, 메인, 몬태나, 미네소타, 미시간, 버몬트, 사우스다코타, 아이다호, 아이오와, 알래스카, 오리건, 와이오밍, 워싱턴,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워싱턴	sehwa0312@kita.net	(26개 주)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델라웨어,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시피, 미주리,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칸소, 애리조나,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유타, 인디애나, 일리노이, 조지아, 캔자스, 켄터키, 콜로라도, 테네시,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중국	베이징	beijingk@kita.net	(2직할시) 베이징, 톈진 (2자치구) 네이멍구, 닝샤이후이족 (7성) 랴오닝, 산둥, 산시(산서), 지린, 허난, 허베이, 헤이룽장
	상하이	kitash01@kita.net	(1직할시) 상하이 (2특별행정구) 마카오, 홍콩 (9성) 광둥, 안후이, 장시, 장쑤, 저장, 푸젠, 하이난, 후난, 후베이
	청두	chengdu01@kita.net	(1직할시) 충칭 (3자치구) 광시장족, 시장, 신강위구르 (서부 6성) 간쑤, 구이저우, 산시, 쓰촨, 윈난, 칭하이
일본	도쿄	jjpp@kita.net	일본 전역
유럽	브뤼셀	kba@kba-europe.com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일부 서비스는 베네룩스 지역 한정)
베트남	호치민	kitahcm@kita.or.kr	베트남 전역
인도	뉴델리	kitain@kita.net	인도 전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kitajkt@kita.net	인도네시아 전역
UAE		kitauae@kita.net	UAE 전역


- (상세내용) [한국무역협회 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신청 플랫폼\(클릭\)](#)을 통해 확인

## 더 찾아보기 : 우크라이나 침공 100일 특집 KBS 다큐멘터리(6.2~3)

지난 2.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우 전쟁이 시작됨. 단기간 내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지난 6.4일 전쟁 100일을 맞이함. KBS는 전장 한가운데서 실제로 전쟁을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전쟁 이야기를 전달함

### ● 제 1부 <포화 속으로> 주요 내용 - 6.2일 22시 방송

- 전쟁 시작 후 68일간 KBS 윤재완 PD가 직접 시가지 전투 현장에 머물며 전쟁의 참상을 보도함

〈폭격으로 전소된 주택들과 차량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분 간격으로 1~2분 동안 로켓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li> <li>• 민간주택을 포함한 도시의 많은 건물들이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전소되었으며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함</li> <li>• 실제로 윤 PD는 식수를 구하러 가는 도중, 러시아군의 포격을 만나 길거리에서 포복자세를 취하기도 함</li> <li>• 폴란드 인근 도시 르비우에서는 하루 수만 명씩 기차를 타고 폴란드로 피난을 가고 있으나 영유아와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탑승시키기 때문에 가족 간 생이별이 다수 발생</li> <li>• 18~60세의 남성들에게는 총동원령이 내려졌고, 군대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청년들은 피란민들을 위해 음식과 잘 곳을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음</li> </ul>

### ● 제 2부 <테티아나의 일기> 주요 내용 - 6.3일 22시 방송

- 키이우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강사였지만, 전쟁 후 외신에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시민기자를 자처한 우크라이나 여성 테티아나가 2차대전 당시 안네의 일기처럼 직접 쓴 일기와 촬영한 영상을 공개함

〈시민기자 활동을 하고 있는 테티아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수십 km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하여 키이우 시민 절반이 피난길을 떠남</li> <li>• 테티아나의 학생들은 대부분 피난을 떠나거나 자원입대를 하여 교실은 텅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수업은 중단됨</li> <li>• 러시아 언론은 뉴스에 보도된 민간인 시신은 마네킹을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여론전이라고 보도하는 등 전쟁 현장을 왜곡함</li> <li>• 이에, 테티아나는 조국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키이우에 남아 현재의 참상을 외신에 알리는 시민기자 활동을 자처함</li> <li>• 키이우에는 무기수리, 군용 구조물 제작 등 군 입대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국을 돕는 사람들도 많음</li> <li>• 테티아나와 한국 유학길을 함께한 친구이자 같은 대학의 동료 교수인故데니스 안티포우 중위는 전쟁이 터진 다음 날 (2.25) 재입대 하였으나 최근(5.18) 전투 도중 전사함</li> <li>• 테티아나는 자신의 기록이 ① 사실 전달과 ②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유죄판결을 받는 데에 쓰이길 바램</li> </ul>

### ● 다시보기 링크

- 제 1부 <포화 속으로>
- 제 2부 <테티아나의 일기>

<https://www.youtube.com/watch?v=wwQyKEXQFJI>

[https://www.youtube.com/watch?v=2WcB\\_15cR7s](https://www.youtube.com/watch?v=2WcB_15cR7s)





##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는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 산업분석실(무역협회가 담당),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가 담당) 등 3개 실을 두고, 3개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b>한국비철금속협회,</b> <b>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b> <b>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b> <b>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산업협회,</b> <b>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b> <b>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b>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b>한국수입협회 (4)</b>
에너지		<b>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b> <b>한국석유공사 (3)</b>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b>대외경제정책연구원,</b> <b>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b>

###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mailto: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 글로벌 경제지표('22. 6. 8. 수)

## [환율]

	'20.12.31	'21.12.31	'22.5.31	'22.6.2	'22.6.3	'22.6.7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237.20	1,252.10	1,242.70	1257.70	+1.21%	+5.22%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37.40	1,252.10	1,242.50	1257.70	+1.22%	+5.08%
₩/CNY	166.04	186.51	185.67	185.45	185.70	188.67	+1.60%	+2.32%
₩/Y100	1,051.19	1,032.48	967.77	963.82	956.81	946.28	-1.10%	-5.23%
Y/U\$	103.34	115.14	127.84	129.91	129.88	132.91	+2.33%	+11.02%
U\$/EUR	1.2279	1.1318	1.0741	1.0666	1.0751	1.0673	-0.73%	-5.34%
CNY/U\$	6.5305	6.3681	6.6520	6.6824	6.6596	6.6705	+0.16%	+2.78%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6.6 (전일)	'22.6.7				
					전일(6.6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112.10	115.60	▲3.50 +3.1%	▲65.55 +131.0%	▲38.48 +49.9%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46.80	147.30	▲0.50 +0.3%	▲60.03 +68.8%	▲26.55 +22.0%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9,712.00	9,612.00	▼100.0 -1.0%	▲1,856.5 +23.9%	▼80.0 -0.8%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742.00	2,715.00	▼27.0 -1.0%	▲763.5 +39.1%	▼91.0 -3.2%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9,400.00	29,050.00	▼350 -1.2%	▲13,143 +82.6%	▲8,125 +38.8%

## [반도체]

	'20	'21	'22.3	'22.4	'22.5	6.2	6.3	6.6	6월(~6)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75	3.47	3.39	3.38	3.38	3.37	3.38
(YoY)	-21.9%	+8.0%	-11.0%	-25.1%	-23.9%	-24.7%	-24.9%	-24.6%	-25.2%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8.0	8.2	8.28	8.27	8.27	8.27	8.27
(YoY)	+7.0%	+32.8%	+33.9%	+34.5%	+30.2%	+30.0%	+29.3%	+29.3%	+27.0%

##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5.13	'22.5.20	'22.5.27	'22.6.2		
						전주(5.27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4147.83	4162.69	4175.35	4208.01	+0.8%	-16.6%

##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4.29	'22.5.31	'22.6.1	'22.6.6	'22.6.7		
							전일(6.6비)	'21년말비
BDI	2217	2404	2566	2633	2560	2514	-1.8%	+13.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협력기관

